

협회소식 / 95

건축계소식 / 101

현상설계경기 / 104

게시판 / 108

해외잡지동향 / 109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6

협회소식 KIRA news

97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우리협회 시·도건축사회의 97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3일 대전광역시건축사회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각 건축사회별로 개최됐다.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각 시·도건축사회별 정기총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13일(목) 18:00
- 장소 : 제주 홀리데이 인 크라운 프라자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13명중 11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당초 331,147,000원 보다 15,000,000원이 증액된 346,147,000원의 수정(안)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감사(3인) : 임성국 최재문(신임), 최진(유임)
    - 감사(1인) : 박현배(유임)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충청남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14일(금) 11:00
- 장소 : 아산시 그랜드호텔
- 참석인원 : 재적인원 148명중 81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임원개선의 건
    - 대의원(9인) : 구본근 남궁담 남기덕 서관원 이갑준 이등고 장세춘 최종욱 홍순백(신임)
    - 감사(3인) : 이문석(유임), 김동환 안영식(신임)
    - 서산지역건축사회장 : 홍순백(신임)



충청남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18일(화) 10:30
- 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98명중 15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사업비(항)중 국제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증액키로 하되, 계수조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였으며, 기타항목은 원안대로 승인함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감사(4인) : 박임전(유임), 김유지 김희현 양동현(신임)
    - 감사(1인) : 강찬수(유임)
    - 대의원(8명) : 박현석 안태경(유임), 김희현 송양석 양동협 임금수 주형신 최수일(신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전라남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18일(화) 11:30
- 장소 : 광주 추선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88명중 5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항목간 조정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감사(3인) : 정남조(유임), 심우석 차영식(신임)
  - 감사(1인) : 김강수(유임)
  - 나주지역건축사회회장 : 김덕태(유임)
  - 대의원(1인) : 김덕태(유임)



전라남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경상북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1일(금) 09:00
- 장소 : 제주 오리엔탈호텔 연회장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85명중 167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부회장 : 조국환(유임)
  - 감사 : 최용달(신임)
  - 감사(4인) : 이진희, 임병욱(유임), 김성태, 김국태(신임)
  - 포항지역건축사회회장 : 이진석(신임)
  - 경주지역건축사회회장 : 손명문(신임)
  - 구미지역건축사회회장 : 김정겸(신임)



경상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김천지역건축사회회장 : 김희곤(신임)
- 안동지역건축사회회장 : 권기탁(유임)
- 상주지역건축사회회장 : 김종길(신임)
- 경산지역건축사회회장 : 장학선(유임)
- 영천지역건축사회회장 : 김봉일(유임)
- 철곡지역건축사회회장 : 김영태(유임)
- 대의원(7인) : 김봉일, 손명문, 김영길(유임), 권기탁, 김정겸, 이진석, 함희목(신임)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1일(금) 10:00
- 장소 : 인천 오림포스호텔 에머럴드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12명중 10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총규모: 370,000,000원)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 정희승(극동건축사사무소)
  - 감사 : 이교진(세진건축사사무소)
  - 감사·대의원 : 신임회장에 위임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강원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1일(금) 10:30
- 장소 : 켄싱턴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42명중 8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운영회비 산출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단, 우사, 토사, 계사

등의 막구조는 20%, 기타 조립식구조는 50%를 적용키로 하고 주4번에 삼입키로 함)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사무소운영정상화대책추진위원회 구성 결의 건
- 지역건축사회별로 각2명(지역회장 포함)씩 12명과 도회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키로 결의함)
- 총회성원에 따른 지역건축사회별 책임분담 결의 건
- 차기 임시총회에서 다시 협의키로 함.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부회장 : 이병일(유임)
- 감사(6인) : 이명섭(유임), 김성호 문용성 민병협 방승문 한광호(신임)
- 대의원(9인) : 김명렬 박용인 이찬호 이병일 최병욱(유임), 김동식 오영근 조정호 홍영배(신임)



강원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4일(월) 14:00
- 장소 : 서울 건축사회관 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732중 49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3만7천원인 정회원 월정회비를 3만원으로 인하하고 그외 운영회비·감정실적회비·광고수입·신문발간비와 96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차기이월금 수입원 등은 9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키로 함.
  -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의 공사감리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 4층이하 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건축사회가 정한 '일정규모 이하 건

축물의 공사감리 운영지침(안)에 추가로 단서조항 등을 보완해 시행키로 결의함.

- 대의원 선출 및 개선·보선의 건
- 회원수 자연증가에 따른 대의원 11명 추가선출과 임기만료 대의원 1백23명, 그리고 본협회 임원으로 피선된 대의원 1명 결원분 등 총 1백35명의 대의원을 증전관례와 같이 본회에서 20%, 지역건축사회에서 80%씩 선출키로 하고, 향후 신병·지병·전출 등의 이유로 결원이 되는 대의원 보선관례는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함.
- 임원 개선의 건
- 임기만료 간사 9명과 사임한 간사 1명의 개선은 회장과 부회장에 위임하기로 하고, 임기만료 간사 1명에는 김성탁(한인건축)회원을 선출함.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경기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00
- 장소 : 경기도건축사회관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703명중 238명
- 의결내용
- 9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감사 : 박효남(유임)
- 간사 및 대의원 : 회장에게 위임
-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 임원회에서 검토하여 시행키로 위임함

■ 제주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6일(수) 15:05
- 장소 : 제주 하니관광호텔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58명중 37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총규모 160,000,000원)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3인) : 김한진(신임), 이동춘 조길홍(중임)
- 감사(1인) : 강성현(신임)
- 대의원(4인) : 김영식(유임), 강요준 김한준 양창완(신임)



제주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30
- 장소 : 부산 롯데호텔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31명중 39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 간사(5인) : 회장에게 위임키로 결의
- 감사(1인) : 조년순(유임)
- 대의원(23인) :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00
- 장소 : 대구 파크호텔 국화홀
- 참석인원 : 408명
- 의결내용
- 98회계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대의원 개선 및 대의원 추가 선출의 건
- 회장 : 이길웅
- 감사 : 안준원 (부회장, 간사, 대의원은 추후 통보키로 함)

■ 충청북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 장소 : 청주 명암파크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52명중 8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간사(3인) : 권오준 심규태 이재삼(신임)
- 감사(1인) : 류익선(유임)
- 지역회장(3인) : 김이구(유임), 강경구 이충구(신임)
- 대의원(7인) : 박오균 이원선 표재범(유임), 송준영 신상일 유영수 장현석(신임)
- 충청북도감리협의회 구성의 건
- 위원 : 이철호, 김이구, 유영수, 김준봉, 이원선, 강경구, 박정걸



충청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경상남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30
- 장소 : 창원호텔 목화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13명중 223명
- 의결내용
- 97년도 제2차 추경수지예산(안)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추진
- 98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거창지역건축사회장 : 신중광(유임)

- 간사(2인) : 손수일(유임)
- 대의원(2인) : 김정관, 백용길(유임)
  - ※ 간사 1인은 미결정, 추후 선임
- 98년도 내부운영회비 정수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전라북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30
- 장소 : 전주 리베라호텔 백제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72명중 110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 : 박충서, 심생길, 송천규
  - 간사 : 고기성
  - 대의원(9인) : 강신중, 김성수, 김주식, 문준영, 심생길, 임종선, 정근, 전형직, 추연철



전라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15:00
- 장소 : 울산건축사회 회관 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18명중 93명
- 의결내용
  - 9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사업계획 및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인건비(항)의 예산은 간사회에 위임하여 예비비(항, 목)과 증·감 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
  - 임원선출의 건
  - 감사(1인) : 윤승록
  - 간사(4인) : 곽한열, 박재현, 윤승보(신임, 개선), 김진규(보선)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의원(6인) : 김기원, 김성하, 박문철, 이병술, 이상렬, 이종태

## 이사회 개최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월 1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화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 제16회

#####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 김무언 이사를 비상근부회장에 선임키로 결의함.
- 제2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다음과 같이 개정키로 결의함

구분	개정내용	비고
제2조 (적용범위)	임원선거 → 회장선거	적용범위의 명확화
제13조 (현직임원의 입후보)	현직임원의 타직임원 입후보시 사임에 대한 현직회장의 예외조건 삭제	공정선거 유도 및 겸직(본협회장+시 ·도 건축사회장) 혼란방지

- 제3호의안 : 건축연구소 운영세칙 및 관련규칙 제정(안) 승인의 건
  - 연구원 임용자격기준에 건축사를 명시하고 임용제한연령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승인함.
- 제4호의안 : 98년도 회관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안) 승인의 건
  - 임대보증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관리비만 8% 인상키로 수정 승인함.

- 제5호의안 : 보수기준 및 심사료 지급 기준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6호의안 : 98년도 건축연구소 직원 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7호의안 : 서울건축사회 직원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8호의안 : 사무기구 개편 및 소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 전학주 이사 및 변종환 이사를 보선키로 결의함

## 협회 대표단, 일본건축사회 전국대회 참가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 김규태전임회장을 명예회원에 위촉

김영수 회장과 김규태·오운동 고문, 송양석 감사로 구성된 우리협회 대표단이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지난 10월 19일 귀국했다. 대표단은 3박4일간의 일본 체류기간 동안 「제40회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를 비롯해 일본측이 마련한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측 대표단과 만나 오는 98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동북아건축교류협의회 제2차 회의를 위한 사전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방문기간중 일본의 주요 건축계인사들과 향후 건축정보교환 등의 교류확대와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접촉을 갖는 등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과있는 활동을 펼쳤다. 한편 일본건축사회연합회측은 지난 10월 17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제40회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에서 우리협회 김규태 고문(제21대 회장)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하였다.

##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 내한

두나라간 건축정보 교류 더욱 활발해질 듯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 일행이 우리 협회 초청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오돈 몽골건축사협회 이사를 단장으로 한 이들 대표단은 방한기간중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과 만나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한·몽 양국간 건축기술정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는 오돈 몽골건축사협회 이사(가운데)

## 제7회 경남건축대전

### 수상자 발표

大賞에 권성만, 류한규 공동작  
'Them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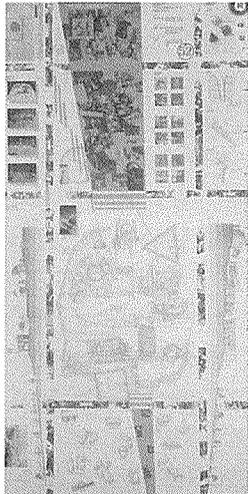
경남건축사회(회장 허필도)가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7회 경남건축대전에서 권성만, 류한규(울산대) 공동출품작인 'Theme Museum'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대, 경남대, 울산대, 창신전문대 등 경남도내 소재 7개 대학 건축관련학과생들의 작품 80여점이 응모한 올해 경남건축대전의 최우수상은 조문현, 최영목(울산대) 공동작 'Pulse in Repulse'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하원일 김구희(경상대) 공동작 'Above all is Right' 외 2개작품이 차지했다. 이밖에 올해 공모전에서는 특선 5점과 입선 18점 등 모두 28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한편 학생대상의 일반공모전과는 별도로 건축사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완공작품전 부문에서는 허정도(서진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의 '거창새별초등학교'가 금상을 수상했으며, 문철수(두양건축사사무소)회원의 '목산정형외과'가 은상을, 임부춘(주. 가원건축사사무소) 회원의 '경남청소년 수련원'과 장경섭(예우건축사사무소) 회원의 '대방동 S씨 주택', 조용범(건축사사무소 범건축)회원의 '가야동'이 각각 동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인 경상대 오인환 교수는 '올해 공모전은 예년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소재선택에 있어 다양성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일반공모전 大賞작 "Theme Museum"



완공작품전 금상작 "거창새별초등학교"

## 충북건축사회 제3기

### 시민건축대학 수료식

5개 강좌이상 수료자 102명 수료증 수여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제3기 시민건축대학 수료식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통신 충북본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현수 청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수강자 가족, 충북건축사회 임직원들의 축하속에 진행된 이날 수료식에서는 전체 수강신청자 161명중 그동안 5개 강좌 이상을 수강한 102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또 이날 수료식에서는 시민건축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홍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충북지회장과 권구원 한국통신 충북본부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충북건축사회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시민건축대학을 개설,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내집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건축관련 기본상식을 위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므로써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제3기 강좌는 지난 9월 30일에 개강해 5주간 총 7개 강좌를 진행해 오는 동안 건축상식을 비롯해 건축재료와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상식, 세무상식, 풍수지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커리큘럼을 통해 수강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불러왔다.

한편 충북건축사회는 지난해보다 27명이 많은 총 102명의 수료생이 배출되는 등 해를 더할수록 시민건축대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프로그램 개발

오는 98년까지 전국 규모의 종합네트워크망 구축

우리협회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협회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실현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월 25일 협회 중회의실에서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프로그램 개발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최종보고회가 열려 본회와 16개 시·도건축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네트워크망 구축사업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업체인 (주)유니시스측은 지난 1년여동안 협회전산관계자들과 공동 연구개발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용 전산 프로그램과 시스템 등의 성과물을 공개하고 이를 직접 시연해 보였다.

협회는 이번 건설기술자경력관리프로그램의 개발로 관련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향후 각종 건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경력변경사항은 물론,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조회, 통계관리, 건축사사무소 등록관리, 미신고자나 미보고업체 현황 등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한된 인력만으로도 많은 수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 관련업무를 손쉽게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건설기술자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초 컴퓨터프로그램 전문개발사인 (주)유니시스를 용역업체로 선정, 본격적인 프로그램개발에 나선 이후 그동안 시험가동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는 본회와 서울건축사회간의 LAN설치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지난 7월 28일 개설된 경기도건축사회의 공중정보통신망 서비스(DNS) 개설과 함

께 오는 98년까지는 WAN설치를 통해 각 시·도건축사회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프로그램개발 보고회 광경

## '97 그룹 '터' 회원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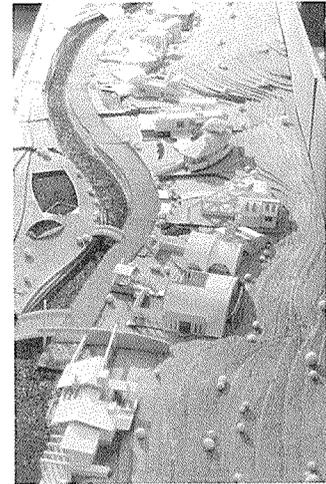
광주지역 건축사 10인 참여

광주지역에서 활동중인 30대의 젊은 건축사들 모임인 '그룹터'(회장 박상구, 구상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첫 번째 회원작품전을 가졌다.

지난 11월 6일부터 5일간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빛고를 갤러리에서는 이광천(동신건축사사무소), 김주연(범미건축사사무소), 김한일(신라건축사사무소), 임경희(건축사사무소 이우) 등 광주지역을 무대로 활동중인 건축가 10인이 모여 「'97 그룹터 회원작품전」을 개최하였다. '청솔마을 전원 스케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작품전에서는 그룹터의 회원들은 각자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작품들을 조화있게 일궈낸 새로운 전원주택단지 모델이 선보였다.

'그룹터'는 지난 95년에 결성된 이후 그동안 작품비평회와 전통건축답사, 해외건축기행, 친선체육대회, 회원사 직원연수회 등 다양한 자체행사를 통해 회원 각자의 철학과 건축세계를 함께 나누어 왔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호화로움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전원주택들과는 다른 우리의 전통주거의 소박함이 배어있는 주거공간을 '청솔마을'이란 이름으로 선보여 화제를 낳았다. 특히 이들 회원들은

전시준비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치밀한 현장답사를 벌이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열의를 보였다.



청솔마을 모형도

## 포스에이씨 심인보 회원, 고속철도 경주역사 현상설계 당선

쾌적한 고속철도의 이미지를 경주의 상징성과 조화시켜

포스에이씨건축 심인보회원의 현상설계안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실시한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지난 11월 21일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설계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선작으로 천년고도인 경주의 상징성과 쾌적한 차세대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이미지를 잘 살려낸 포스에이씨 심인보회원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인 포스에이씨 안은 대지 3만2천평, 건축면적 1만6천여평의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구조물로 설계됐다. 한편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우수작으로 선정된 남산건축 안을 비롯해, 동우건축과 원도시건축의 출품작이 가작에 선정됐으며, 아키펠랜드와 공간건축이 각각 입선을 차지했다.

## 건축가협회,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

'97 건축가축제 함께 열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가 우리건축의 문화적 위상 고양과 건축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및 '97건축가축제」가 지난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렸다. 올해 대한민국건축대전에는 일반공모부문 당선작 1백50점과 77인의 초대작가 작품 77점, 제2회 건축사진전 당선작 33점, 제19회 건축가협회상 수상작 7점 등 올 한해동안의 우수 건축작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됐다.

앞서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11월 19일 올해 대한민국건축대전의 부문별 당선작을 발표했는데 총 7백68점이 응모한 일반공모부문에서는 도시의 주택들이 안고 있는 주차·탁아·주민 공동체 형성의 문제점들을 실제적으로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도시단독주택지 개발안」의 이현창(명지대 대학원 건축학과)씨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단성사 재건축안」을 출품한 홍만식(서울시립대 건축학과 4년)씨와 「정신대 추모관」의 정수은(이화여대 건축과 4년), 「동사무소 계획안」의 안장식씨 등 3명이 수상했다. 이밖에 특선작에는 김사원(홍익대 건축과 4년)씨의 「공존」 등 모두 7개 작품이 선정됐다.

또 기성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대작가 전에는 「부산수산업보단지」(서울포럼/김진애 설계), 「고속철도 남서울 역사」(신아건축 설계), 「대구종합경기장」(이상건축 설계) 등 모두 77점의 작품이 전시돼 우리건축의 최근경향을 한눈에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중에는 올해 원공건축물 가운데 완성도가 높은 우수작품의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7점도 함께 전시됐다. 올해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으로는 건축문화사옥(김광현 서울대 건축과 교수 설계), 부산방송국 리노베이션(한울건축 이성관 설계) 삼보컴퓨터사옥(정립건축 설계),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기오현건축 민현식 설계), 신정동 여성의원(일건씨엔씨건축 설계), 용문 청소년수련장(건축문화 김영섭 설계), 휘닉스파크콘도미니엄(시상건축 유건 설계) 등 모두 7점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건설 및 자재업체들의 신자재 및 기술개발 현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건설 및 자재업체 전시회」도 함께 열려 많은 건축인들과 일반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지난 11월 28일 오후 3시부터는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개막식 광경

## 현실비평연구소 주최 제3회 비평상 공모전

주제는 '한국학파'

현실비평연구소에서는 한국 현대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참신한 비평인 발굴을 위해 제3회 「비평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한국학파'로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무대예술, 조경,

디자인, 사진 등 7개 부문에 걸쳐 오는 98년 3월 20일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현실비평연구소가 발행하는 문화무크지 「비평건축4호」에 소개되며 특히, 응모작에 등장하는 대상작품이나 소재작가는 한정된 지역을 반영하고 봉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 원고분량은 200자원고지 70매 분량의 미발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예비당선작을 선정후 별도의 공개포럼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가리게 된다.

응모자는 내년 1월말까지 현실비평연구소에 미리 참가신청 접수를 마쳐야 한다.

문의 : 현실비평연구소 (02-304-6539, 376-7775~6)

## 두물위크샵 건축전시회

건축가 11인의 '북한강 이야기'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단절된 북한강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성을 회복하기 위한 건축전시회와 세미나가 열린다. '자연과 커뮤니티(Nature & Community)'란 주제로 오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양수리 북한강변 두물위크샵에서 열리는 이번 건축전시회 및 세미나에는 우경국, 백문기, 김준성, 민선주씨 등 모두 11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땅의 가능성을 비현실적 공론이 아닌 현실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피부에 와닿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지역건축의 새로운 좌표와 함께 건축의 존재가치를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소인 두물위크샵은 양수리 영화촬영소에서 셋터삼거리(철길건널목)방향으로 2.5km 떨어진 북한강호텔에 인접해 있다.

- 건축전시회 : 1997. 12. 7 ~ 1997. 12. 5
  - 개전식 : 1997. 12. 7(일) 오후 3시  
(피아니스트 김진호 연주회)
  - 세미나 : 1997. 12. 13(토) 오후 3시
  - 우경국 : 북한강 이야기
  - 김원식 : Circulation
  - 장림중 : Periphery
  - 참여건축가
  - 김준성, 민선주, 조병수, 김홍일, 전인호, 김현, 헬렌박
- 문의 : 두물위크샵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721 / Tel. 0346-592-3336)

## 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 프랑스 국가공로기사단장 훈장 수여받아

양국 건축교류 기여 공로

강석원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지난 11월 25일 한·불 양국간 건축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공로 기사단장 훈장을 수여받았다.

##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이상건축誌 주최, 연립·다가구 주택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주제로

건축전문지 「월간 이상건축」에서는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주최측은 기존 도시내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의 집합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뜻에서 올해 공모주제를 '집합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응모자들이 선정할 대상부지는 서울경기지역,

대전충청지역, 광주전라지역, 부산경상지역 등이며 각 대학 건축관련 학생이나 건축설계중사자(건축사면허 소지자 제외)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제출기간은 98년 2월 5일부터 10일까지이며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김영섭(건축문화 대표) 2인 심사위원이 2월중 심사해 당선작과 가작, 입선 각 10점씩을 선정하게 된다.

도면의 경우 쉼표나 그와 유사한 용지에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 패널은 600×900mm 사이즈 3매 이내를 5~10mm 우드락 등에 부착해 제출해야 한다. 설계설명서는 A4용지 3장분량에 설계개념과 아이디어 형성과정, 기본도면 등을 수록해 출품자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문의 : 월간 이상건축(051-465-1833, 5)

## 한국의 홀로그램·빛의미래展

진우건축 김동훈씨 등  
예술 각 장르별 8인 작품전시

건축, 순수홀로그램, 시각커뮤니케이션, 조각, 패션, 디자인, 미래건축, 조명 등 예술 각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 홀로그램이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한 색다른 전시회가 열려 화제를 모았다.

지난 11월11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예술창작의 세계를 홀로그램과 레이저라는 첨단매체를 이용, 삼차원의 입체영상으로 표현해 내므로써 공간과 색채, 형태의 운동을 조화있게 강조해낸 「한국의 홀로그램·빛의 미래전」이 열렸다.

건축가 김동훈(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를 비롯해 홀로그램작가 김남석(주. 송산·홀로그램코리아 대표),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상봉부터 대표), 조각가 최병상(이화여대교수) 심영철(수원대 교수), 건축가 조택연, 조명디자이너

허승효(주. 알토건축 대표), 시각디자이너 박순보(홍익대 교수) 등 8명의 예술인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장르의 '전이'를 비롯해 '보리밭', '빛과 소리의 언약' 등 각 예술 분야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건축가 김동훈씨는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큰 의미가 있었고 또한 조형적 언어가 시간적 상황에 맞게 창작되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모색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출품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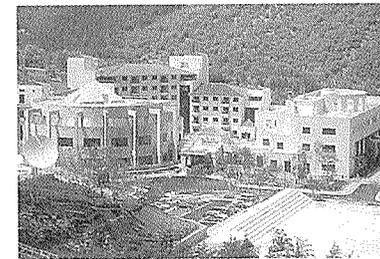
김동훈씨의 전시작품 "전이"는 여러 예술비평가들로부터 공간적 해석경험을 토대로한 수준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김동훈작 "전이" (90×90cm 석고, Bestwood)

## 제8회 환경문화상 종합대상에 삼성중 산청연구소

건축, 조경, 조각·환경조경  
4개부문 수상작 발표



삼성중공업 산청연구소

문화체육부는 지난 11월 5일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90년에 처음 제정돼 올해로 8째를 맞는 환경문화상은 건축, 조경, 조

각·환경조형 등 4개부문에 걸쳐 대상 작품을 공모, 이들 가운데 부문별 우수 건축물을 선정, 시상해 있다. 올해 부문별 수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종합대상**

경남산청군 삼성중공업 산청연구소

**건축부문**

경기도 안양시 신병원

**조경부문**

경남 창원시 생태도시 문화공간

**실내장식**

경기도 용인시 국민생명 미래원

**조각·환경조형부문**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개발원 내 '생성'

**빌딩외벽관련 설계도서 제공  
하이텔 정보서비스 등장**

빌딩외벽 설계전문업체인 **홀텍**사에서 운영, 하이텔 go FAD 접속

빌딩외벽에 대한 설계자료와 시방서자료, 이론자료 등의 정보를 PC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시스템이 등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빌딩외벽관련 설계전문업체인 홀텍社(대표 이기용)가 FAD라는 이름으로 하이텔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이 인포샵에는 커튼월을 비롯해 창호, 석재·판재크래딩 등 주로 빌딩외벽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이 들어있다. 이용자는 분당 500원이 과금되는 자료실 뿐만이 아니라 회원에 가입할 경우 정보나눔터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필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도 있으며, FAD측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하이텔 접속후 go FAD를 입력하면 곧바로 FAD자료실로 접속된다.

인포샵이란 정보제공자 IP(Information Provider) 또는 SP(Service Provider)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한국통신이 대신받아 IP(또

는 SP)로 정산, 분배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문의: 홀텍(02-202-9123/담당:고재학)

**건축신간 안내**

한국전통조경구조물  
+산조  
건축가 박서홍 작품/글모음 2집

◇ 한국전통조경구조물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전통공간을 구성하는 연못, 우물, 문, 담장, 석조, 장승, 옛길 등 전통구조물들을 망라해 각 구조물들이 갖는 물리적 특성과 경관적 특징들뿐만이 아니라 이들 요소의 상징적 의미를 오랜기간동안 전국 각지의 한국전통조경 유적들을 직접 답사하고 촬영한 사진자료와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전통조경건축물은 전통건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들에게는 자료가치가 크며 더욱이 이 책에는 전통조경구조물을 직접 설계·시공하는 저자의 전문가다운 해박함이 곳곳에 잘 들어나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박경자작/ 도서출판 조경(02-569-9967~8) 퍼냄 / 160쪽 / 1만2천원



◇ 안영배 교수의 건축이야기 "+산조"

이 책은 올해로 건축인생 40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립대 안영배 교수의 '철학과 인생'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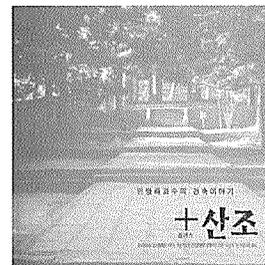
건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조화'는 정연한 조화인 '정조(整調)'와 흐트러진 이질적 요소의 조화인 '산조(散調)'로 볼 수 있으며, '+산조'는 정조를 이루되

부분적으로 산조를 병행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정조와 산조는 우리나라 고건축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나,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미스(Mies)나 루이스칸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한국건축만의 특징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한다.

저자인 안영배 교수는 삶의 철학이자 작품활동의 개념으로 +산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저자의 초창기 작품부터 이전의 작품활동 전모를 통해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조의 개념을 앞으로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통해 나타낼 것임을 밝혀 퇴임후 자신의 건축인생이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안영배 著/도서출판 발언(02-929-3546) 퍼냄/220×200mm/279쪽/1만5천원



◇ 「건축가 박서홍 작품/글 모음」 2집

건축가 박서홍(희산건축)은 전등전, 송파구민회관, 진해충훈탑, Darien Hotel 등 45점의 작품과 수년간 건축관련잡지에 투고한 원고를 모아 「박서홍 작품/글 모음」 2집을 발간했다. 우리의 전통건축에 뿌리를 둔 그의 건축은 왕성한 사회활동과 함께 소박함과 열정이 깃들여 있으며 냉철한 그의 건축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서홍 著/도서출판 정문사(02-266-4555) 퍼냄/120쪽/1만5천원

